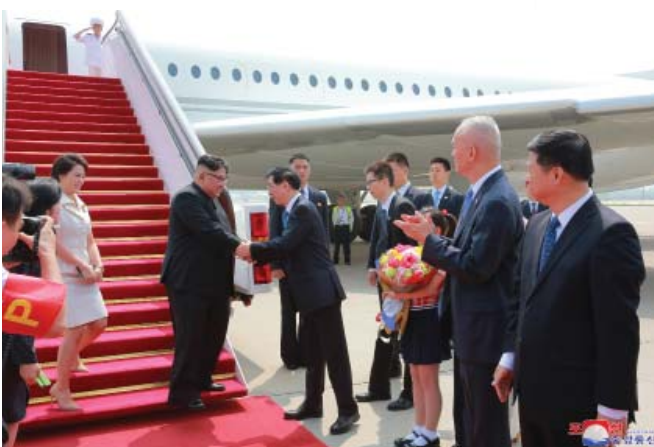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악수를 하시며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기에 오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시였다.
리설주녀사와 함께 19일 오전 평양국제비행장에 조선로동당과 정부간부들은 경애하는
나오시였다. 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방문에서 훌륭한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환송 성과를 거두시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충심
하는 의식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진행되 으로 축원하였다.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전용기는 조선로동
당과 정부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오전 9시 20분
정착국 성원들이 뜨겁게 환송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송나온 간부들과 일일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 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전용기는 베이징시간으 로 오전 10시 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 한 대장정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대의 국민으로 또다시 맞이하게 된 베이징시는 조종천선의 뜨거운 정이 감동고있었다.
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는 조종 두 나라 국기 들이 게양되어있었고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 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시자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 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마중나온 중국의 영접간부들은 위대한 조종천선 의 새로운 년대기우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중국 을 또다시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높은 존경과 신뢰의 정을 안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국당과 정부의 특례적인 영접과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고 전용차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타신 전 용차는 모터씨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뉘시 터국빈관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국의 영접간부들이 숙소 까지 안내해드리였다.

본사기자